

關漢卿 戲劇의 倡孝思想研究

宋 琬 培

◁ 目次 ▷

- | | |
|-------------------|--------------------|
| I. 머리말 | IV. 關漢卿 戲劇의 忠孝一致思想 |
| II. 原始遺風 守護下의 孝思想 | 1. 科擧及第와 孝道 |
| III. 關漢卿 戲劇의 孝道形象 | 2. 漕官의 孝子保護 |
| 1. 賁娥의 孝誠 | 3. 養父養子의 忠孝一致 |
| 2. 韓瓊英의 孝誠 | V. 맺음말 |
-

I. 머리말

孝道의 崇尚은 關漢卿 戲劇의 주요 主題 중의 하나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여러 긍정적인 이미지를 살펴볼 때, 다른 傳統 道德觀念에 대하여는 다소 寬大한 점이 있으나 孝道에 대하여 만든 아주 嚴格하였다. 儒家에서 주장하는 여러 傳統美德 중 孝道는 關漢卿의 作品 중에 수없이 提唱되어 그의 작품의 중요한 思想表現의 하나였다. 倡孝에 관련된 關漢卿의 작품을 볼 때, 어떤 극에서는 孝道의 實踐過程이 作品 構成의 일관된 主題가 되어 줄거리의 起承轉結을 이루고, 어떤 劇에서는 孝行의 片鱗만 볼 수 있다하더라도 劇 중 人物形成과 不可分의 關係가 성립되어있다. 關漢卿 作品 중의 孝子, 孝女는 중국 고대의 傳統 道德觀念을 계승하면서도 蒙古 등 北方 少數民族의 元始遺風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性格特徵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傳統文化와 北方 少數民族의 文化가 相互融合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關漢卿이 그의 작품에서 표현한 孝道를 崇尚하는 文化的 特質과 藝術的 表現을 고찰하였다.

II. 原始遺風 守護下的 孝思想

孝道の 崇尚은 중국 고대 傳統 道德觀으로, 《孝經》은 일찍부터 儒家의 經典으로 인식되어 宋代에 이르러서는 13經의 하나가 되었다. 《晉書》·《宋書》로 부터 正史에 《孝友傳》을 설치하여 孝子에 대한 기록을 하였으며, 正史 《列女傳》의 人物 中에도 상당수의 孝女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¹⁾

중요한 것은 關漢卿이 생활하던 시대에 蒙古 統治者나 기타 少數民族들도 孝道를 重視하여 儒家思想하에서 生成된 孝道思想을 배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孝道와 관련된 자기 民族 固有의 많은 元始遺風을 維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北方 少數民族의 元始遺風 中 父母에 대한 孝敬重視風潮가 中國 傳統儒家思想의 孝敬思想과 서로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異民族들이 混在하였던 關漢卿의 시대에 孝道의 宣揚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重視되었으며, 이 점이 關漢卿 戲劇의 주요한 素材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鐵哥는 西域人으로 蒙古 憲宗 蒙哥 때부터 元 武宗 2年 까지의 사람으로 關漢卿과는 同時代를 살았던 사람이다. 鐵哥가 네 살 때에 그의 叔父 那摩去와 같이 憲宗 蒙哥를 拜謁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황제가 닭을 먹다가 철가에게 먹으라고 권하였다. 철가는 받아들이고 먹지 않았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으니 철가는 「어머님께 갖다드려 드시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황제가 기특하게 여겨 다시 한 마리를 하사하였다.(帝方食雞, 輒以食鐵哥, 鐵哥奉而不食, 帝問之, 對曰: “將以遺母.” 帝奇之, 加賜一雞.)²⁾

닭은 그 시대에 아주 귀한 음식이었는데, 당시 겨우 네 살이었던 鐵哥는 蒙古의 大汗이 하사한 닭을 먹지않고 집에 가져가 모친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이로 보아 孝道는 西北 少數民族의 風習에까지 뿌리깊게 스며있었음을 알수 있다. 鐵哥는 어려서부터 孝誠이 至極하여 成年이 되어서도 여전하였다. 元 世祖 卽位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철가가 17세 되던 해 귀한집 처녀를 골라 처를 삼으라는 조서를 내렸다. 철가는 「신

1) 晉書, 宋書, 舊唐書, 唐書, 金史, 元史 등에 孝友傳이 수록되어 있으며, 列女傳은 二十四史의 後漢書, 晉書, 宋書, 北史, 新唐書, 遼史, 金史, 元史, 明史 등에 수록되어 있다.

2) 《元史》 卷 125. 鐵哥

의 어머니는 漢族이어서 항상 한족의 여자를 구하여 며느리로 삼고자 하시니 신은 감히 어머니의 마음을 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양한 후 염씨를 처로 맞아들였다.(於是鐵哥年十七, 詔擇貴家女妻之. 辭曰「臣母漢人, 每欲求漢人女爲婦, 臣不敢傷母心」乃爲娶冉氏女.)³⁾

鐵哥가 配偶者를 선택할 때 婉曲한 말로 忽必烈의 美意를 거절한 것은 母親의 바램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元 世祖 忽必烈은 비록 天子의 위치에 있었지만 鐵哥의 婚事를 자신의 생각대로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鐵哥의 孝誠心이 忽必烈의 理解를 얻어내었음은 물론 더욱 忽必烈의 信任을 얻어 계속 重責을 받았다.

廉希憲(1231-1280)은 위그루족으로 關漢卿과 同時代 사람이었다. 그도 孝誠이 지극한 사람으로 이름이 있었다. 元 世祖 忽必烈은 佛心이 깊어, 그가 帝位에 오르기 전에 西藏의 高僧 帕思巴東을 불러와서 帝位에 오른 후 國師로 삼았다. 世祖가 廉希憲에게 受戒를 명하자 「신은 공자의 계율을 받았습니다(臣受孔子之戒矣)」라고 대답한다. 世祖가 다시 묻기를 「공자에게도 그런 계율이 있는가?(孔子亦有戒耶?)」라 하자, 廉希憲은 「신하된 자는 충성을 다하고 자식된 도리는 효성을 다하여야 되는 것이 공자의 계율입니다(爲臣當忠, 爲子當孝, 孔子之戒, 如是而已)」라고 하였다.⁴⁾ 廉希憲은 위그루족 血統의 賢臣으로 文武를 兼하였으며 儒敎의 影響과 자신의 種族의 元始遺風을 따라 忠孝를 根本으로 삼는 사람으로 世祖가 命하는 改宗을 원치 않았다.

關漢卿이 살았던 시대에 朝廷에서도 孝道를 重視하여, 孝道의 擁護를 法律의 重要한 機能으로 삼았다. 至元 12년(1275년) 元 世祖 忽必烈이 中書省에 하달한 文件에 따르면 「中書省에 登聞鼓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父母, 兄弟, 夫婦가 살해를 당하였으나 그 怨恨을 하소연할 길이 없는 자는 와서 북을 두드려 그 사건을 세밀히 처리하여 법에 저촉된 자는 법으로 다스려라.(諭中書省議立登聞鼓, 如爲人殺其父母兄弟夫婦, 冤無所訴, 聽其來擊, 其以或細事唐突者如法)」⁵⁾ 는 命命을 하달하였다. 이는 直系家族이 被殺 당한 일이 다른 어느 일 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며, 이런 자는 登聞鼓를 울릴수 있고 이를 듣는 즉시 朝廷에서 事件을 審理하라는 것이다. 血親 殺害者에 대한 復讐는 오래된 風習으로, 忽必烈은 親族殺害犯에 대한 傳統的인 復讐를 法律의 形式으로 이를 繼承함과 동시에 전통적 孝道思想을

3) 《元史》 권 125 鐵哥

4) 《元史》卷 126. 列傳 제 13. 廉希憲

5) 《元史》卷 8. 本紀 제 8. 世祖 5

擁護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關漢卿 生存時 朝廷의 法律은 孝道를 擁護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法律보다 더 重視하기도 하였다. 趙復은 南宋의 捕虜로 程朱理學을 北方에 傳播한 주요한 인물이다. 元 世祖 忽必烈은 卽位 전에 趙復과 서로 往來를 하여 다음과 같은 逸話가 남아있다.

世조가 잠저에서 조복을 떠보며 묻기를 “내가 송 나라를 얻고 싶은데, 경이 그 길을 알려줄수 있겠소?” 조복이 대답하기를 「宋은 제 부모의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 제 부모를 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世祖는 기뻐하며 강권하지 않았다. (世祖在潛邸, 嘗召見問曰: “我欲取宋, 卿可導之乎?” 對曰: “宋, 吾父母國也, 未有引他人以伐吾父母者.” 世祖悅, 因不强之仕.)⁶⁾

상식적으로는 趙復은 일개 捕虜로서 忽必烈의 要求를 거절한다는 것은 生命의 危險까지도 각오하여야 하는 일이다. 趙復은 宋 나라를 자신의 부모에 比喻하여 자신이 宋의 子息임을 내세워 外部人을 끌어들이 祖國을 칠 수 없다고 하였다. 趙復은 政治上의 利害를 道德上的 善惡으로 比喻하여 忽必烈의 要求를 물리침과 동시에 상대방의 理解를 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孝’는 ‘法’보다 우위에 있었고 ‘不孝’는 大逆不道한 심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關漢卿의 作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元 英宗 至治 2년(1322년) 두 가지 事件이 일어났다. 그 하나는 「한로사가 부모를 고발하여 그를 죽이다(韓魯思告諫父母, 斬之)」⁷⁾ 의 事件으로 韓魯思는 부모를 告發한 罪로 不孝大罪라는 名目으로 斬刑을 당한다. 또 다른 한 사건을 살펴보자.

駙馬 許納의 아들이 「臣의 부친은 謀叛을 하였고, 臣의 어머니는 姦通을 하였읍니다」라고 고발을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사람의 자식으로 부모를 감싸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지금 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간하였구나」 하며 그를 죽이라고 명하였다. (駙馬許納之子訴曰: “臣父謀叛, 臣母私從” 帝曰: “人有親有隱無犯, 今有過不諫, 乃復告諫” 命誅之.)⁸⁾

이 駙馬의 아들은 부모를 告發한 罪로 머리가 잘리는 極刑을 당하였다. 英宗은 不孝莫甚한 자는 결단코 죽여버렸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孝’가 ‘法’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傳統은 忽必烈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이 典型的

6) 《元史》卷 189. 列傳 제 76. 儒學 一

7) 《元史》卷 28. 本紀 제 28. 英宗 二

8) 《元史》卷 28. 本紀 제 28. 英宗 二

인 두 가지 사건은 關漢卿이 살았던 至元, 大德 시기로부터 불과 이십년 전의 일로, 關漢卿이 생존했던 시기도 대략 같았으리라 추정되며 이러한 社會的 氛圍는 關漢卿의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III. 關漢卿 戲劇의 孝道形象

1. 竇娥의 孝誠

關漢卿은 그의 作品에 '孝'를 人物評價의 重要 尺度로 삼아 人物을 描寫하거나 故事의 줄거리를 展開하는 과정에서 孝道를 宣揚하였다. 關漢卿 戲劇 중 注目を 받는 두 명의 孝女가 있는데, 하나는 《感天動地竇娥冤》의 女主人公 竇娥이고, 다른 하나는 《山神廟裏度還帶》의 主人公 韓瓊英이다. 關漢卿은 이 두 人物을 描寫할 때 孝道를 몸소 實踐하고 宣揚하는 것을 基調로 극의 줄거리를 구성하였다.

竇娥가 맞는 不幸은 그녀가 세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일곱 살 때 父親을 떠나 蔡家에 민머느리로 팔려 들어가 열일곱에 결혼을 하나 곧 남편이 죽게된다. 劇 중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는 불행한 運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천하락】 전생에서 소원성취를 극진히 빌지 않은 탓이 아니겠소. 앞으로 할 일을 한 마디로 말하면, 今世에 착하게 살고 來世를 위하여 평생동안 공덕을 쌓아야겠지요. 제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 다음 효도와 수절을 하려는 저의 이 말은 반드시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天下樂》莫不是前世裏燒香不到頭, 這前程事一筆勾, 勸今世將來世修. 我將這婆待養, 再將這服孝守, 我言詞須應口.)⁹⁾

作家가 이 노래를 劇의 제 1齣에 按配한 것은 이를 그녀에 대한 劇 중 人物描寫의 基調로 삼는다는 것이다. 竇娥는 宿命論者이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불행을 前生의 業報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現生이 이미 절망에 이르러 어떠한 幻想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希望은 來世에 의탁하는 모습을 보인다. 來世에서의 행복한 운명은 現世에서 誠心誠意껏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前生의 業報를 씻음으로 써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人生의 座標를 孝道에 두고 이를 실천하면서 벗어나기 어려운 現世의 悲劇的인 運命을 살기로 결정한다.

9) 《感天動地竇娥冤》 제 1절.

시어머니(蔡婆婆)가 빚을 갚는 과정중 張驢兒 父子를 만나게 되는데, 시어머니는 張驢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寶娥도 張驢의 아들에게 再嫁를 할 것을 권한다. 이때에 寶娥는 守節과 孝道를 지키려는 중요한 시험에 직면한다. 그러나 寶娥는 自身은 貞淑한 婦女子가 되겠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시어머니가 張驢에게 再嫁를 가기로 同意하자 寶娥는 이 것도 決死反對하여 시어머니를 말리며 노래한다.

【잡설】 내 생각으로는 시어머니가 그 남자의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데 촌구석의 늙은이를 맞이하다니 의리에 어긋나 따르지 못하겠구나. 한번의 옛정으로 충분하지요, 당신은 좋다고 하지만 저는 곤란합니다. 우리 시아버지의 財産이 풍족한데, ……張驢의 아들의 情을 받아들이라시면 이는 前家の 財産을 다음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賺煞】我想這婦人每休信那男兒口, 看你那天長地久, 招的個村老子, 領着不律頭, 舊恩情一筆都勾, 你可也自窮究, 俺公公撞府冲州, ……教張驢兒情受, 這的是前人田土後人收.)¹⁰⁾

寶娥가 시어머니를 말릴 때, 옛날의 孝心을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가 張老의 甘言利說에 속지 말 것을 권한다. 또한 시아버지가 어렵게 만든 재산과 옛 夫婦의 情을 想起시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다. 이로 볼 때 그녀의 孝心은 눈앞의 시어머니로부터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改嫁를 반대하는 것은 시아버지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財産이 헛되어 張驢 父子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劇의 줄거리는 寶娥의 孝誠心을 시련에 들게 할뿐만 아니라 그녀의 孝心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劇의 전개를 더욱 발전시키고 矛盾과 衝突을 生成한다.

劇의 제 2齣에서 시어머니가 병을 얻자 寶娥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핀다. 비록 그녀가 시어머니의 改嫁를 극구 反對하였지만, 그녀의 孝心에는 아무런 動搖도 없이 여전히 시어머니를 奉養을 하였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양고기 국을 바치며 노래한다.

【격미】 어머님께서 소금이 적고 신맛이 부족하면 맛이 없고 산초를 더 넣어야 맛이 좋다 하셨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빨리 완쾌 바랄 뿐입니다. 이 고깃국을 드시고 빨리 완쾌하시어 세 식구가 옛날같이 모이면 큰 기쁨이지요. (【隔尾】你說道少鹽欠醋無滋味, 加料添椒才脆美, 但願娘親早痊濟, 飲湯羹一杯, 勝甘露灌體, 您三口兒團圓到來喜.)¹¹⁾

'孝'의 基本은 윗사람의 뜻에 복종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지않는 것이요, 이 것이

10) 《感天動地寶娥冤》 제 1절.

11) 《感天動地寶娥冤》 제 2절.

‘禮’의 根本이다. 寶娥는 처음에 시어머니의 改嫁를 반대하였으나, 그녀의 反對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묵묵히 시어머니의 選擇을 따른다. 그러나 孝心은 여전히하였다. 이 劇의 줄거리 중 寶娥는 시어머니에게 양고기 국을 바쳐 시어머니가 빨리 健康을 恢復하여 張驢의 父子와 함께 다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는 寶娥의 善良함을 反映함과 동시에 그녀의 性格描寫중 妥協의 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善良과 妥協 모두 寶娥의 孝心을 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張老가 그의 아들이 毒을 넣은 湯을 잘못 마시고 죽음에 이르자, 張驢의 아들은 도리어 寶娥가 毒을 넣었다고 謀陷을 한다. 法庭에서 寶娥가 혹독한 拷問에도 承服을 하지 않자 刑吏는 시어머니를 拷問하려고 하였다. 寶娥는 시어머니가 拷問의 苦痛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대신 죽을 각오로 자신의 罪로 認定한다. 그녀가 刑吏에게 시어머니를 拷問하지 말라며 말하기를 「우리 시어머니를 때리지 마시오! 내가 말하지요. 내가 시아버지를 독살하였오. (休打我婆婆, 我招了吧, 是我葯死公公)」¹²⁾ 라고 말한다. 이때 비로소 시어머니는 後悔를 하며 寶娥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자, 寶娥는 오히려 「만약 제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어머니를 구하겠습니까?(若是我不死, 如何救得你)」¹³⁾ 라고 노래한다. 여기에 이르러 寶娥의 孝心은 새로운 絶頂에 다다르며 劇情 또한 最高潮에 到達한다. 寶娥는 자신의 죽음으로 孝誠을 다하는데, 그녀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無辜하고 또 그녀가 보호하고자 하는 對象도 아주 선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寶娥는 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였다. 이렇게 그녀의 孝心은 生死의 갈림길에서조차 약해지지 않음은 물론 더욱 강렬하게 발휘된다. 이에 더하여 寶娥는 刑場으로 끌려갈 때 뒷길로 갈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大路로 갈 경우 시어머니가 보고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生命의 最後時刻에 이르러서까지도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孝誠만을 생각하고 있다. 劇의 줄거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寶娥가 죽은 후 그녀의 冤魂이 寶天章에게 現夢하여 事件의 真相을 설명하며 殺人者와 昏官을 벌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年歲가 많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께서 저의 시어미를 돌봐주십시오. (俺婆婆年紀高大, 無人侍養, 恩養俺婆婆)」¹⁴⁾ 라고 시어머니를 걱정한다. 寶天章 또한 딸의 마음을 받아들여 「너의 시어미는 내가 돌봐드리겠다」 라고 대답하여 그녀로 하여금 편히 눈을 감게 한다. 여

12) 《感天動地寶娥冤》 제 3절.

13) 《感天動地寶娥冤》 제 3절, 尾聲.

14) 《感天動地寶娥冤》 제 4절.

기에서 劇은 끝을 맺지만 寶娥의 시어머니에 대한 孝心은 冤魂으로 나타나면서까지 極盡하였다.

이렇게 關漢卿은 '孝'를 이 劇의 일관된 主題로 표현하였다. 寶娥의 性格은 孝心의 發現過程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劇의 줄거리 또한 寶娥의 孝心을 中心軸으로 起承轉結을 이룬다.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孝心은 結婚의 事件이나 生死의 갈림길에서도 변하거나 동요하지 않는데, 劇의 줄거리 또한 그녀의 孝行의 實踐에 따라 우여곡절을 이루며 觀衆들의 心琴을 울린다.

《感天動地寶娥冤》의 줄거리는 歷史上의 東海孝婦의 줄거리와 같다. 劇 중에 寶天章이 東海孝婦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東海孝婦의 이야기는 《漢書·于定國傳》에 보인다.

동해에 효부가 있었는데, 젊어 과부가 되고 아들을 잃었다. 시어미가 그를 개가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이웃에게 말하기를 「효성스런 며느리가 나를 봉양하느라 매우 힘들고 애석하게도 아들도 없이 수절을 한답나다. 나는 늙어서 오랫동안 며느리 혼자서 남자와 같이 힘들게 일을 하니 어찌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그후 시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으나 시누이가 官衙에 가서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소」라고 고발하여 刑吏가 며느리를 逮捕하자 孝婦는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刑吏가 엄하게 問招하니 효부는 無辜한 자백을 하였다. 刑吏가 형구를 갖추어 관아에 가서 태수에게 이 효부가 十餘年이나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효성이 자자하다는 소문을 들어 결코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太守가 듣지 않자 論爭을 거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刑吏는 형구를 끌어안고 관아에서 울며 사형을 거절하였다. 태수가 결국 효부를 죽이자 고을에 三年 동안 가뭄이 들었다. 후임 태수가 도착하여 그 연고를 짐을 쳐 물으니 「효부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전임 태수가 억지로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소?」라 하였다. 이리하여 태수는 소를 죽여 몸소 효부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녀의 묘에 표시하자 하늘이 즉시 큰비를 내렸다.(東海有孝婦，少寡，亡子，養姑甚謹。姑欲嫁之，終不肯。姑謂鄰人曰：“孝婦事我勤苦，哀其無子守寡。我老，久累丁壯，奈何？”其後姑自經死。姑女告吏，“婦殺我母。”吏捕孝婦，孝婦辭不殺姑。吏驗治，孝婦自認服。具獄上府，於公以爲此婦養姑十餘年，以孝聞，必不殺也。太守不聽。於公爭之，弗能得，乃抱其具獄，哭於府上，因辭疾去。太守竟論殺孝婦。郡中枯旱三年。後太守至，卜筮其故。於公曰：“孝婦不當死，前太守強斷之，咎黨在是乎？”於是太守殺牛自祭孝婦家，因表其墓。天立大雨，歲孰。)

이 두 故事에서 作家는 非現實의 表現方式을 빌어 현실적 내용을 표현하였다. 東海 孝婦가 無辜히 살해된 후 三年의 큰 가뭄이 들었고, 寶娥가 恨을 품고 죽자 유월에 눈이 내리고 楚州는 큰 가뭄이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두 억울한 죽음이 하늘을 노하게 한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실제로는 각종 예사롭지 않은 自然現象을 통하

여 孝婦가 살해된 것에 대한 抗議와 憤怒를 표시한 것이다. 作家의 숨은 意圖는 하늘은 孝道를 擁護하고 無辜한 孝婦를 同情하여 人間의 孝道는 하늘의 意志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東海 孝婦가 억울한 匿名을 벗은 후 고을에 가뭇이 없 어지고 豐年이 든 것으로 보아 寶娥의 억울한 죽음이 눈(雪)을 부른 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劇에서 作家가 觀衆들에게 제시하는 바는 孝婦의 名譽를 회복하여 사람들에게 孝道의 肯定的인 面을 浮刻시키고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韓瓊英의 孝誠

《山神廟裴度還帶》 중의 韓瓊英은 關漢卿이 描寫한 또 다른 孝女形象으로 그녀의 孝行이 이 劇의 즐거리를 構成하는 중요한 要素이다. 韓瓊英과 寶娥의 다른 점은, 寶娥의 出身은 貧寒한 가정이고 韓瓊英은 洛陽太守의 딸로서 名門閥秀이다. 關漢卿이 描寫한 두 사람의 孝行方式도 서로 달라서 寶娥의 孝行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시어머니를 극진히 奉養하는 悲劇的 方式으로 그렸으며, 瓊英의 孝行은 詩를 읊어 돈을 모금하여 고난 끝에 아버지를 감옥에서 구해내는 喜劇的인 方式으로 展開하였다.

韓瓊英의 부친은 남의 陰害를 받아 감옥에 갇혔다. 이 때문에 부친의 贖身金 三千貫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詩를 읊어 돈을 모으고 여기에 친지들의 도움을 얻어 二千貫을 모았다. 그녀는 또 朝廷에서 파견한 察訪使 李邦彦에게 詩를 읊어 그로부터 玉帶 하나를 하사받는다. 李邦彦은 韓瓊英의 孝心에 감동을 받아 흔쾌히 玉帶를 하사하였다. 韓瓊英이 三千貫을 마련하였으나 불행히도 暴雪을 피하여 山神廟에 들어가 그 귀중한 玉帶를 잃어버리게 된다. 절망에 빠진 瓊英은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내가 아버님을 옥에서 구해내지 못하고 효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무슨 얼굴로 세상에 살겠습니까? 어머님 제가 어머님도 돌봐드리지 못하겠으니 이 생명 무엇에 쓰겠습니까? 저는 허리띠를 풀고 자진을 하려고 합니다. (我不能勾救我父離獄, 又不能勾盡孝之心, 有何面目立於天地之間? 母親, 我也顧不的你也. 要我這性命做是麼? 我解下這前胸帶, 我尋個自盡.)¹⁵⁾

瓊英이 詩를 읊어 募金을 한 것은 부모에게 孝誠을 다하기 위한 것이고, 그녀가

15) 《山神廟裴度還帶》 제 3절.

自盡을 하려는 것은 孝誠을 다할 수 없는 絶對絶望中에 할 수없이 選擇한 길이다. 瓊英이 詩를 읊어 募金を 할 때는 대단한 才女의 形象으로 나타나지만, 自殺을 하려는 場面에서는 그녀의 剛直한 모습을 보여준다. 劇 중에서 孝行에 대한 成功과 失敗는 關漢卿이 瓊英의 形象을 描寫하고 劇을 展開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裴度は 그가 拾得한 玉帶를 돌려주어 韓瓊英을 구한다. 裴度は 瓊英에게 無限한 尊敬心을 갖게되는데, 그의 이 같은 생각은 瓊英의 孝誠에 感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 남자 같은 효녀가 있으리요, 자고로 효자는 많아도 효녀는 적지요, 여자 중에는 세 명밖에 없을 거요.(世間似小娘子貞孝之女, 自古孝子多, 孝女少, 女子中止有三個人也)」¹⁶⁾ 라 하였다. 이는 그가 瓊英의 孝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이고, 그녀와 같은 효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는 표시이다. 그가 이어서 노래를 부른다.

【도도령】 옛적에 賈氏는 부친을 위하여 龍을 죽여 孝道를 하였고, 楊香은 부친을 위하여 호랑이를 제압하여 효도를 하였고, 曹娥는 부친을 위하여 강가에 앉아 울며 효도를 하였는데, 오늘 瓊英은 부친을 위하여 詩를 지어 효도를 하는구나. 참으로 하늘과 땅이 감동을 받아 춤을 추는구나! 부모를 위하여는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모두 인간의 효성을 다하는구나!(【叨叨令】當日個賈氏爲父屠龍孝, 楊香爲父跨虎會行孝, 曹娥爲父壓江孝, 今日瓊英爲父題詩孝. 端的可便感天地也波, 端的可便感天地也波. 爲父母呵, 男女皆可盡人之孝.)¹⁷⁾

關漢卿은 裴度の 입을 빌어 歷史 속의 孝女들과 瓊英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賈氏가 아버지를 위하여 龍을 죽인 故事는 出處를 알 수 없지만, 楊香이 아버지를 위하여 호랑이를 制壓한 故事는 南朝의 劉敬叔이 지은 《異苑》에 나온다.

「順陽 南鄉에 楊豐과 香이라는 아들이 밭에서 밤을 따는데 호랑이가 물려고 하였다. 香의 나이 겨우 14 살이고 손에는 무기도 없었으나 不問曲直 호랑이의 목을 졸라 楊豐은 危機를免하였다. 至極한 孝行에 感動을 받아 猛獸마저도 그를 위하여 뒤로 물러섰다.」(順陽南鄉楊豐與息名香, 於田獲粟, 因爲虎所噬, 香年十四, 手無寸刃, 直握虎頸, 豐遂得免, 以誠孝至感, 猛獸爲之逡巡.)¹⁸⁾

曹娥의 故事는 《後漢書·列女傳》에 보인다.

16) 《山神廟裴度還帶》 제 3절.

17) 《山神廟裴度還帶》 제 3절.

18) 《異苑》 卷 10.

「孝女 曹娥는 會稽 上虞人이다. 그의 아버지 盱는 樂器와 노래에 能하여 占을 치며 살았다. 漢安 2년 5월 5일 縣江에서 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迎神 굿을 하다 溺死하였으나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다. 娥의 나이 겨우 열네살이었으나 강을 따라 오르며 슬피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다가 7일만에 강물에 빠져 죽었다. 元嘉 元년에 縣長 度尙이 娥를 길가에 改葬하고 비석을 세웠다.」(女曹娥者, 會稽上虞人也. 父盱, 能絃歌, 爲巫祝. 漢安二年五月五日, 於縣江沂濤婆娑迎神, 溺死, 不得尸骸. 娥年十四, 乃沿江号哭, 盡夜不絕聲, 旬有七日, 遂投江而死. 至元嘉元年, 縣長度尙改葬娥於道傍, 爲立碑焉.)¹⁹⁾

이 故事는 東漢 安帝 永初 2년(108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東漢 말엽에는 孝女 曹娥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있었는데, 關漢卿은 그의 戲劇에서 孝女의 形象을 描寫할 때 歷史上의 인물을 끌어들여 作品의 素材로 活用 劇 중 人物들의 대화를 통하여 觀衆들로 하여금 孝道의 重要性을 깨우치게 하였다.

韓瓊英이 玉帶를 잃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裴度에 의하여 沮止를 당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對話 중 孝道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韓瓊英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나를 나아 애써 길러주시고 성장할 때까지 먹여주신 때문이니, 제가 비록 딸이라 하더라도 효도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哀哀父母, 生我劬勞, 養小防老, 積谷防饑. 妾雖女子, 亦盡孝也)」²⁰⁾ 라고 말하며 「母氏劬勞」라는《詩經·邶風》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韓瓊英의 孝道에 대한 理解는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恩惠에 報答하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치이다. 그녀의 생각에 대하여 裴度는 그녀가 쉽게 자살을 해서 안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요편】 당신이 말하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수고는 보통으로 생각하는부모의 은공입니다.

(대운) 성현의 말씀에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함부로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근본입니다.

(창) 당신은 어찌 생명을 버리려 합니까?

(정말운) 부모가 생존해 계시고 자식이 온전하여야 효라고 할 수 있지요.

【么篇】 你道是從來養小防備老, 都一般哀父母劬勞.

(帶云) 先聖有言, 身體膚髮,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

(唱) 你便怎生性命自取?

(正末云) 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可謂孝之.²¹⁾

19) 《後漢書·列女傳》 曹娥.

20) 《山神廟裴度還帶》 제 3절.

21) 《山神廟裴度還帶》 제 3절.

裴度が 引用한 聖賢의 말씀은《孝經》이고 마지막 구절은《大戴禮記·曾子大孝》에 보인다. 裴度は 經典에 근거하여 瓊英의 자살을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竇娥는 宿命을 생각하며 孝行으로 來世를 바라보고, 韓瓊英은 부모의 은덕에 보답함을 孝道로 생각하고, 裴度は 生命을 保全함이 효도라 생각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孝道'는 극히 素朴하고 眞實함에 있을 뿐이지 抽象的인 哲學이나 深奧한 道德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이런 점이 關漢卿 戲劇에 나타나는 '孝道'의 특징으로 그 당시의 社會的 傾向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人間의 天性이거나 傳統文化의 影響을 받았거나를 막론하고 孝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지극히 素朴한 것이며 原始 生命意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關漢卿은 이러한 점에 着眼하여 그의 現란한 필법으로 戲劇을 통하여 그가 처해있던 당시의 社會에 대하여 인간의 참된 道理와 血肉의 所重함을 呼訴하였던 것이다.

IV. 關漢卿 戲劇의 忠孝一致思想

傳統 中國社會에서는 血緣關係와 政治關係가 종종 함께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忠'과 '孝'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關漢卿은 그의 戲劇에서 '孝'에 대한 稱頌의 표현을 발전시켜, '忠' 즉 君主에 대한 忠誠으로까지 擴大하였다. 이러한 '孝'와 '忠'의 一致觀은 그의 戲劇에 세 가지의 방식으로 表現되었다. 하나는 科擧에 及第하여 家門을 빛내는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清官의 形象으로, 또 다른 하나는 養父養子의 形象으로 나타난다.

1. 科擧及第와 孝道

儒敎思想이 支配하던 傳統 中國社會에서 知識人들의 科擧及第는 家門을 빛내는 동시에 人生의 가장 큰 目標였다. 대부분의 知識人들은 科擧及第가 君主를 充實하게 輔弼하고 祖上에게 孝道를 하는 가장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關漢卿의 戲劇에서도 科擧의 及第를 孝道의 實現으로 描寫하였으며 家門을 빛낸 선비들을 稱頌하였다.

關漢卿의 戲劇 《山神廟裴度還帶》 제 3折에서, 裴度は 漢瓊英의 죽음을 저지

하며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부모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다.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고 말하고 있다. 劇 중에서 어떻게 후세에 이름을 남기든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 없지만 裴度와 같은 선비에게 있어서는 科擧의 及第가 揚名の 가장 理想的인 方法이며 오랜 세월을 이 目標을 追求하며 살았고 후에 이 目標을 이루었다.

關漢卿의 또 다른 戲劇 《壯元堂陳母教子》에서 어머니 陳母와 長男의 대화를 들어보자.

(정단운) 매 삼년에 한차례 과거가 있으나 금년에는 매년 과거를 실시한다지. 금년에 방이 붙어 과거를 열 때 우리 아들들이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얻어 가문을 빛내면 얼마나 좋을까!

(대말운) 모친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금년에 방이 붙어 과장을 열면 이 아들들이 과거에 응시하겠습니다. 만약 관직을 얻어 가문을 바꾸면 조상을 빛낼 수 있겠지요.

(正旦云) 每年間三年放一遭選場, 如今一年開一遭選場, 見今春榜動, 選場開, 着大哥求官應擧去, 得一官半職, 改換家門, 可不好那!

(大末云) 母親說的是, 今年春榜動, 選場開, 您孩兒便上朝求官應擧去. 若得一官半職, 開換家門, 可以光輝祖宗也.²²⁾

劇 중의 陳氏 家門은 名門家로 西漢의 丞相 陳平의 後裔이다. 따라서 陳母의 가르침은 세 아들이 모두 科擧에 及第하도록 督勵하여 집안에 壯元堂을 세우는 것을 필생의 目標로 한다. 그리고 長子인 陳良資는 모친의 苦心을 十分 理解하여 자신이 科擧에 及第하여 母親에게 孝道하고 집안을 일으켜 조상을 빛낼 결심을 한다. 하늘도 무심치 않아 陳良資와 陳良叟 兄弟는 두 해 連續 科擧에 及第하여 壯元의 으뜸에 올라 온 집안이 기뻐하였다. 셋째 陳良佐도 自矜心이 대단하여 三年 후에 科擧에 참가하였으나 겨우 探花에 오르자 陳母의 분노는 크게 끓어올랐다. 이어 母親의 訓戒와 激勵을 거쳐 다음해에 陳良佐는 壯元에 올라 어머니의 念願을 이루고 家門을 빛낸다.

이 劇의 전체적인 構成은 세 아들이 科擧에 及第하는 것을 主題로 하여 아들의 壯元及第 與否가 孝와 不孝의 標準이 되게 하여 科擧의 及第와 孝道의 關係를 긴밀히 連繫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劇 중의 세 아들이 科擧에 應試하는 過程에 孝道에 대한 陳母의 말은 여러 차례 제시되지만 朝廷과 國家에 대한 忠誠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觀念중 士人의 及第는 곧 父母에 대한 孝

22) 《壯元堂陳母教子》 楔子.

誠이요 國家에 대한 忠誠을 意味하였다. 이 當時 士인들이 科擧에 應試하는 意義는 이 劇의 楔子에 나오는 寇萊公의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금 황제께서 인자관후하여 매년 한차례 과거를 실시하니 천하의 수재들이 모두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구하기 바란다. 오늘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이름을 감추고 재능과 덕을 갖추고서도 글읽기에만 전념하고 벼슬에 나오지 않는 인재들이 있다하여 황제께서 이 늙은이에게 현시를 찾아 나서도록 명하셨노라. 모든 이치는 한때 어울리고 만리강산은 나라로 귀속하는 이치이니 천하의 문장은 높이 살 것이니 모두 진심으로 나라를 보위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하거라. (今以聖主仁慈寬厚, 一年開放一遺舉場, 天下秀士都來應舉求官, 今奉聖人的命, 怕有那山間林下, 隱迹埋名, 懷才抱德, 閉門讀書不肯求進的, 聖人着老夫南五路上探訪賢士走一遭去. 調和鼎甌理陰陽, 萬里江山屬大邦, 天下文章齊仰賀, 他都待赤心報國盡忠良.)²³⁾

이 내용은 科擧를 통하여 官員을 採用하거나 隱逸之士를 찾아서, 이런 士들에게 朝廷에 忠誠할 機會를 주어 朝廷의 股肱之臣이 되게 하자는 意味이다. 따라서 陳氏 三兄弟가 壯元及第를 한 것은 父母에 대한 孝誠과 祖上을 빛내는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朝廷에 忠誠하고 國家를 위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劇의 主人公인 陳母를 보면, 그녀가 아들을 督勵하는 것은 壯元及第로 孝道를 함은 물론 君臣間의 忠誠을 約束하는 것이다. 셋째 아들 陳良佐가 及第를 하여 西川을 지날 때 그곳의 한 노인이 陳母에게 옷을 지어드리라고 옷감을 선물한다. 陳母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내며 「못난 자식이 관직에 오르기도 전에 백성들의 재물을 받다니, 얹드려라! 아프게 맞아야 되겠구나. (辱子未曾爲官, 可早先受民財, 徇着, 須當痛快)」²⁴⁾ 라고 말하며 친히 陳良佐를 벌한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서 倡孝와 勸忠의 일치가 확실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現實世界의 大部分의 士人들은 科擧를 私利私慾의 手段으로 삼고, 名譽의 道具로 삼아 官職에 오른 후 百姓의 財産을 빼앗을 뿐 國家에 忠誠하는 일은 드물었을 것이다. 陳母의 이러한 行動은 關漢卿의 理想을 表現한 것으로, 科擧에 及第한 모든 士인들이 '孝'와 '忠'을 同一하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陳母의 喜怒哀樂은 자식들의 科擧 結果에 따라 기쁨과 실망이 교차한다. 셋째 陳良佐가 科擧에서 壯元에 오르지 못하자 집안에서 아들을 쫓아낼 정도로 화를 참지

23) 《壯元堂陳母教子》 楔子.

24) 《壯元堂陳母教子》 제 3절.

못하다가, 다음해에 두 번째 應試에서 壯元에 오르자 노여움이 기쁨으로 변하여 「너의 효성은 왕상이 얼음위에 누운 것과 같고, 백유가 우는 것과 같구나. 아! 아들이! 老萊子가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것보다 더 기쁘구나!(你孝順似王祥臥冰, 你恰似伯俞泣仗。哎, 兒也, 你勝強如兀那老萊子哎斑衣)」²⁵⁾ 라고 아들을 추켜세운다. 여기에 나오는 세 孝子중 王祥은 《晉書》에 나오며, 伯俞는 劉向의 《說苑·建本》에 나오는 인물이고, 老萊子의 故事는 《藝文類聚》에 나온다.

《晉書》卷 33에 보이는 王祥의 故事를 살펴보자.

祥은 효성이 지극하였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繼母 陳氏는 자애롭지 못하여 자주 그를 구박하니 이 때문에 부친의 사랑도 잃었다. 항상 그에게 청소를 하고 소를 먹이게 하였으나 祥은 기쁘게 부모의 뜻을 따랐다. 부모가 병이 들자 항상 의복을 벗지 않고 탕약은 손수 달여 올렸다. 어머니가 항상 신선한 물고기를 드시고자 하여 엄동설한에 꿩꿩 얼어붙은 강에서 祥은 옷을 벗고 얼음을 깨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얼음이 스스로 갈라지며 두 마리의 잉어가 튀어나와 그것을 잡아 돌아갔다.(祥性至孝, 早喪親, 繼母陳氏不慈, 數潛之, 由是失愛於父, 每使掃除牛下, 祥愈恭謹, 父母有疾, 衣不解帶, 湯藥必親嘗, 母常欲生魚, 時天寒冰凍, 祥解衣將剖冰求之, 冰忽自解, 雙鯉躍出, 持之而歸.)²⁶⁾

《說苑》에 나오는 伯俞泣仗의 故事를 살펴보자.

백유가 잘못을 하여 어머니가 그를 때리자 울었다. 그의 어머니가 묻기를 「이전에 때릴 때는 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우는게냐?」 하시자, 그가 대답하기를 「이전에 제가 잘못을 저질러 맞을 때는 매우 아팠으나 오늘 어머니의 힘이 약해져서 어 전혀 아프지 않아 이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伯俞有過, 其母答之, 泣, 其母曰:“他日答子, 未嘗見泣, 今泣何也?” 對曰:“他日愈得罪, 答嘗痛; 今母之力不能使痛, 是以泣.”)²⁷⁾

老萊子는 古代 中國의 有名한 孝子이다. 老萊가 색동옷을 입은 故事는 《藝文類聚》에 보인다.

노래의 아들은 양친을 극진히 섬겼다. 칠십 세에도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 옷에 흙탕을 묻히고 집에 돌아와 땅바닥에 뒹굴며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였

25) 《壯元堂陳母教子》 제 3절.

26) 《晉書》卷 33. 孝子傳.

27) 《說苑·建本》 伯俞傳.

다.(老萊子孝養二親, 行年七十, 嬰兒自娛, 着五色彩衣, 嘗取漿上堂, 跌仆, 因臥地爲小兒啼.)²⁸⁾

위의 세 孝子에 대한 故事는 古代 中國에 널리 퍼져있었으며, 關漢卿도 陳母의 입을 통하여 그 내용을 作品에 引用하였다. 古代 中國에서는 孝誠에 세 단계의 구분을 두었다. 《大戴禮記·曾子大孝》에서 「효도에는 세 종류가 있다. 제일 큰 효도는 양친을 존경스럽게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이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봉양하는 일이다.(孝有三: 大孝尊親, 其次不辱, 其下能養.)」라 하였다. 즉 孝道는 세 가지로 區分되는데 가장 큰 孝道는 부모와 조상들로 하여금 尊敬을 받게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이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이고, 가장 낮은 효도가 부모를 奉養하는 것이라 하였다. 王祥, 伯俞, 老萊子の 孝誠은 모두 父母를 奉養하는 範疇에 속하여,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어떤 이는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科擧에서의 及第는 父母를 尊敬받게 하는 孝道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孝道에 속한다. 이 때문에 陳母는 陳良佐의 及第가 王祥臥冰의 효도, 伯俞泣仗의 효도, 老萊子斑衣의 효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陳母의 對話를 통하여 作家인 關漢卿의 孝道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劇에 나오는 陳良佐는 처음에 그다지 孝誠스럽지 못하다가 후에 큰 孝誠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變遷過程 중 그의 性格 또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가 科擧에 應試하기 前에는 다만 自矜心을 가지는 일면만 보여주다가, 及第를 하지 못하여 집안에서 冷待를 받자 性格이 괴팍해지고 失意에 가득 찬 장면과 壯元及第 후 祝賀宴에서 대단한 기쁨을 나타내는 데서 作家 觀漢卿의 孝道觀을 明確히 알 수 있다.

2. 清官의 孝子保護

關漢卿의 戲劇중 '忠'과 '孝'를 一致하는 또 다른 形式은 劇 중 人物이 清官으로 출현하여 孝子, 孝女의 保護와 除暴安良의 形象으로 나타난다. 그의 戲劇에서 清官은 孝道の 保護者이며 天子의 忠臣으로 나타난다.

《感天動地寶娥冤》중 寶天章은 寶娥의 父親으로 官拜參知政事이다. 이 劇 제 4절 시작부분에 「나는 清廉公正하고 節概가 굳은 사람이다. 聖恩은 이 사람에게 提刑肅政廉訪使의 직을 주시며 劍金牌를 하사하여 어디에서든지 죄인을 심문하고

28) 《藝文類聚》卷 20. 列女傳.

탐관오리를 감시하는데, 나는 먼저 참하고 나중에 진언할 수 있다.(老夫廉能清正, 節操堅剛. 謝聖恩可憐, 加老夫兩准提刑肅政廉訪使之職, 隨處審囚刷券, 敕賜劍金牌, 體察濫官汚吏, 老夫先斬後奏)」²⁹⁾ 라고 말한다. 자신을 紹介하는 이 말에서 그가 朝廷에서 파견된 큰 權限을 가진 清官임과 天子에 대한 忠誠이 가득하며 一心으로 國家를 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孝道의 主倡者로 자신의 딸에게 孝行을 實踐할 것을 嚴格히 要求한다.

이 劇의 제 4折에 그가 寶娥의 魂魄과 나누는 對話를 살펴본다.

내가 너를 그 덕에 시집보낼 때 너에게 三從四德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삼종이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출가한 후로는 하여는 지아버이를 따르고, 지아버이가 죽으면 이들을 따르라는 것이 바로 삼종이요, 四德이라 함은 시부모를 잘 모시고, 지아버이를 공경하고, 동서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四德인 것이니라.(我將你嫁與他家呵, 要你三從四德. 三從者, 在家從父, 出嫁從夫, 夫死從子, 此乃爲之三從. 四德者, 事翁姑, 敬夫主, 和妯娌, 睦街坊, 此乃爲之四德.)³⁰⁾

三從四德의 범위는 매우 넓게 쓰이나 그 핵심은 孝道로서, 여자가 친부모에게 효도하고 出嫁하여서는 시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다. 寶天章은 처음에 딸 寶娥가 三從四德의 德目を 違背한 罪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지 의심하였으나, 寶娥의 억울함을 듣고서야 비로소 無辜히 죽은 孝女라고 믿는다. 寶娥의 억울한 죽음은 寶天章이 씻어주는데, 그는 딸의 冤魂을 씻어주며 그가 崇尚하고 딸이 굳게 지켰던 孝道를 護衛한다. 이와 함께 그가 昏官惡人을 懲罰하는 것은 國家를 위하여 惡을 除去하고 天子에게 忠誠을 다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극에서는 寶天章을 '忠'과 '孝'가 合一된 形象으로 描寫하여, 朝廷의 忠臣 清官이 孝女 寶娥의 保護者로 나타난다.

《感天動地寶娥冤》중 寶天章과 《山神廟裴度還帶》중 李邦彦의 配役은 同一하다. 李邦彦은 韓瓊英의 불행한 사정을 듣고 玉帶를 풀어주며 「이 여인은 장부의 기개가 있구나. 청렴한 부친과 엄한 모친의 훈계를 받은 효녀로다. 이런 여인은 고금에 드물구나. 나도 당신의 부친이 억울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소, 내가 이런 일을 밝힐 명을 받고 왔으니 장차 문서로 꾸며 서울에 가서 진언하려하오.(此女子有丈夫之剛, 又兼父廉母嚴孝女, 此一言, 古今稀有. 小官聞知汝父冤枉, 某奉命專察

29) 《感天動地寶娥冤》 제 4절.

30) 《感天動地寶娥冤》 제 4절.

不明之事, 我將此一事我自動文書往京師奏知.)」³¹⁾ 라고 말한다. 李邦彦은 朝廷의 廉訪使로 洛陽에 왔다. 그가 맡은 使命은 寶天章과 같으며 그 자신 또한 清廉剛直한 清官이다. 그가 흔쾌히 玉帶를 풀어준 것은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만난 격으로, 韓瓊英一家를 일시에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劇의 結末은 父親 韓廷幹의 억울한 누명이 풀리고, 韓瓊英과 裴度는 사랑의 결실을 맺고, 韓廷幹은 參知政事에 오르고 裴度는 壯元及第를 하게 된다. 이 劇에서 清官 李邦彦은 劇의 展開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데, 극의 大團圓에서 李邦彦은 「나라의 기쁨은 의로운 장부와 정절의 부녀가 있음이요, 사랑스러운 것은 효성스러운 자손이 있음이로다. 군주의 관직과 상을 내리시니 모든 것이 군주의 은덕이로구나.(國家喜的是義夫節婦, 愛的是孝子順孫, 聖明主加官賜賞, 一齊的望闕謝恩)」³²⁾ 라고 말한다. 孝女 韓瓊英은 清官 李邦彦을 만남으로서 父親은 억울한 옥살이를 벗게되어 그녀의 孝行은 좋은 結果를 가져오게 되며, 李邦彦은 흔쾌히 玉帶를 풀어주어 韓瓊英의 危急함을 해결해줌으로써 자신의 職責인 勸善懲惡을 實踐한다. 즉 그의 朝廷에 대한 忠誠은 孝女 韓瓊英을 돕는 一連의 過程을 통하여 충분히 발휘되고 '忠'과 '孝'는 일치함을 보여준다.

위의 두 劇에서 清官이 孝女를 위한 守護神과 解決士로 出現할 때, 清官이 朝廷에 대한 忠誠과 孝女를 救援하는 일은 서로 調和를 이루며 法律의에 違背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手法이 人間情理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劇情의 處理가 순조롭게 전개된다. 그러나 清官이 孝子를 돕는 過程이 人情에는 들어맞으나 非合法的이면 劇情의 處理가 難處해진다. 《包待制三勘蝴蝶夢》이 이런 경우이다. 이 劇의 王老漢은 開封府 中牟縣 사람으로 농사꾼이다. 거리에서 부잣집 아들 葛彪의 말머리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그에게 맞아죽는다. 王老漢의 세 아들이 화가 나서 「집안은 가난해도 효자는 있다.(家貧也顯孝子)」라는 생각으로 葛彪를 찾아가 復讐를 하려다 실수로 그를 죽이게 된다. 세 아들이 잡혀 옥에 들어간 후 包拯이 이 사건을 審理하게 된다. 包拯은 犯人을 가려내기가 어렵게되자 잠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當時 '殺人償命'은 法律의 規定으로, 세 아들의 立場에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복수를 한 것이며, 法庭에서 서로 다투어 죽음을 自處하는 모습은 包拯으로 하여금 惻隱한 마음을 들게 한다. 이리하여, 그는 겉으로는 王三을 死刑까지로 결정하나 알아치기 手法을 교묘히 사용하여 실지로는 말 도둑 趙頑驢를 죽인다. 이

31) 《山神廟裴度還帶》 제 2절.

32) 《山神廟裴度還帶》 제 4절.

때문에 王氏 일가는 목숨을 保全하였을 뿐 아니라 三兄弟 모두 官吏에 登用된다. 劇의 이런 결과는 王氏 一家에게는 뜻하지 않은 기쁨을 가져다주었고 包拯에게는 心理인 平溫함을 가져다주었다. 王氏 三兄弟가 孝誠이 지극하기 때문에 法律의 處分을 免할 수 있고 더 나아가 褒賞까지 받는 이러한 劇情의 處理는 人情이 法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타낸다. 包拯의 이러한 斷案은 자신도 孝子에 부끄럽지 않고 朝廷의 법률에도 違背되지 않은 措置로, 孝子를 保護하고 朝廷에 忠誠하는 二重의 효과를 거둔다. 劇 중의 몇몇 臺詞는 《山神廟裴度還帶》의 마지막 句節 「나라의 기쁨은 의로운 장부와 정절의 부녀가 있음이요, 사랑스러운 것은 효성스러운 자손이 있음이로다. 군주의 관직과 상을 내리시니 모든 것이 군주의 은덕이로구나」 과 같다. 關漢卿은 이 두 戲劇에서 劇情은 다르지만 指向하는 바를 一致시켜 孝子를 褒揚함과 同時에 '忠'과 '孝'는 서로 一致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3. 養父養子の 忠孝一致

關漢卿의 戲劇중 '忠'과 '孝'의 일치를 나타낸 또 다른 構成方式은 養父養子型이다. 《鄧夫人苦痛哭存孝》와 《劉夫人慶賞五侯宴》 두 戲劇이 이에 속한다. 後唐의 基盤은 沙陀族 首領인 李克用이 수립하였다. 그는 수많은 部下를 義子(양아들)로 삼았는데, 李存孝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李存孝의 원래 이름은 安敬思라 하였는데 용감하고 戰術에 能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다. 李存信과 康君立 두 사람도 李克用의 양아들이었는데, 그들은 항상 李存孝를 猜忌하여 李克用의 指命이라고 속여서 李存孝로 하여금 옛 이름을 回復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또다시 李克用에게 李存孝가 옛 이름으로 改名을 하였으며, 이는 李存孝가 謀叛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謀略한다. 李克用은 醉中에 이들의 증상모락을 듣고 李存孝를 사형에 處한다. 그후 李克用의 夫人 劉氏가 돌아와 事件의 真相을 밝히고 李存信, 康君立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한 후 李存孝의 祭祀를 지낸다. 《鄧夫人苦痛哭存孝》劇 중 李存孝, 李存信, 康君立 등과 李克用 사이에는 父子關係이면서 君臣關係라는 重複關係가 成立된다. 李存孝는 忠孝의 化身으로 李克用에 대한 忠誠心이 강하고 臣下의 職分에 충실하고 아들의 禮를 다하였다. 李存信, 康君立 두 사람은 不忠不孝한 逆臣으로 李存孝와는 鮮명한 對照를 이룬다. 李存孝는 忠君과 義父에 대한 孝敬心이 강한 形象으로, 李存信, 康君立 두 사람은 李存孝가 舊名을 回復하고 養父養子の 義理를 버리고 君主를 背反하는 形象으로 나타난다. 李存信, 康君立 두 사람이 義父를

속이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君主로 하여금 汚名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關漢卿은 李存孝를 同情하여 '忠'과 '孝'의 一致를 실천하는 形象으로 描寫하여 劇의 構成을 李存孝가 誤解를 받고 殺害를 당한 후 匿名을 벗는 順序로 展開하여, 한편으로 忠臣志士가 陰害를 당하는 것을 浮刺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忠孝精神의 永遠不滅함을 悲劇의 形式으로 表現하였다.

《劉夫人慶賞五侯真》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는 劇으로, 주인공 李從珂 또한 '忠'과 '孝'가 한 몸에 結合된 形象으로 描寫되었다. 그의 本名은 王阿三으로 출생 후 한 달만에 大將軍 李嗣源의 養子가 되어 목숨을 구하게 된다. 十八年 후, 李從珂로 改名된 王阿三은 文武를 겸비한 將軍으로 성장하여 병사를 이끌고 戰場에 가던 중 公교롭게도 고난에 빠진 生母 李氏를 만나게 된다. 生母 李氏는 李從珂를 보고 자신의 아들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울면서 지난 일을 말한다. 한바탕 迂餘曲折을 거쳐 李從珂는 끝내 자신의 出生의 秘密을 알게되고 生母를 맞이하여 天倫의 기쁨을 나눈다. 作家 關漢卿은 李從珂를 義父 李嗣源에게 忠誠과 孝心을 다하는 忠臣孝子로 描寫하였다. 그의 孝心은 養父, 養母의 관계에서만뿐만 아니라 生母에게도 같이 나타나어, 이 劇을 보는 이로 하여금 忠과 孝가 이름답게 結合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作家가 劇 중에 描寫한 生母 李氏의 수많은 苦難은 실지로 李從珂의 孝誠을 다하는 根據로 사용되어 그녀가 困境에서 벗어나는 契機를 마련해 주고, 劇의 전체 氛圍氣를 悲劇에서 喜劇으로 轉換하는 劇的 效果를 演出한다. 李從珂가 生母와 만난 후 李嗣源은 兵士를 이끌고 와서 生母 李氏를 虐待하던 무리들을 懲罰하는데, 이는 李從珂의 忠誠心과 孝誠心을 믿기 때문에 義子의 生母에 대한 孝道를 支援하는 것이다. 作家는 忠과 孝는 相互補完되는 것이며 孝道는 사사로운 이익만을 돌보지 않는다는 보편적 思想으로 作品을 그려낸 것이다.

V. 맺음말

人間의 社會活動은 그 社會 構成體 固有의 보편적 倫理道德과 社會的 禁忌事項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며,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構成員의 行爲準則이 생성된다. 이러한 行爲의 準則은 社會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文學 創作活動에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시대의 文學을 논할 때 그 당시의 倫理觀이나 社會的 禁忌事項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中國 歷史上, 中原에 入住한 여러 少數民族

들은 民族 固有的 質朴한 元始遺風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의 傳統儒學 및 先秦諸子의 學說에도 그 以前의 文化的 要素와 復古의 色彩를 保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중국 傳統文化의 心性之學은 中國에 入住한 少數民族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져 서로 다른 民族間에 同質感이 生成되었다.³³⁾

關漢卿이 創作活動을 하던 당시는 北方 遊牧民族이 中原을 支配하던 시기로, 여러 民族間의 異質의인 文化가 混在 하면서 相互 類似함과 同質感을 찾는 시기였다. 이에 蒙古 統治者는 被支配階級の 協助가 필요하였고, 被支配階級인 대부분의 漢人 知識人들은 社會安定을 통하여 옛 신분이 회복되기를 희망하여 戲劇이 이의 宣傳道具로 쓰였을 것이다. 鍾嗣成은 《錄鬼簿》에서 戲曲藝術의 宣傳 力量은 “忠義”와 “孝烈”에 있다고 하였다. 元代 戲曲 作家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概念과 말로써 戲曲을 통하여 忠과 孝를 提唱하였다. 그들은 戲曲의 教化作用을 통하여 사회 各 階層과 種族間에 理想的인 倫理關係 즉 “居家則을 父慈子孝, 立朝則君臣聖明”을 세우고자 하였다.

關漢卿의 戲劇에서도 孝道의 崇尚이 주요 主題의 하나이며 중요한 思想表現이었다. 그는 蒙古등 北方 少數民族의 原始遺風과 中國 傳統의 儒教思想에서 이어 내려온 忠孝思想을 相互 連繫하여 독특한 作品世界를 구현하였는데, 그는 작품의 줄거리에 觀衆들이 익히 알고있는 傳來 故事를 引用하여 觀衆들로 하여금 더욱 생동감 있고 익숙함을 느끼게 하여 作家가 意圖하는 바를 전달하였다. 그의 戲劇에서 登場人物은 父母와 家門에 대한 孝道의 實踐過程을 통하여 國家에 대한 忠誠을 同時에 表現하는 形象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러한 戲劇을 통하여 孝道가 忠誠과 一致되는 概念이라는 作家의 思想을 觀衆들에게 傳達하고자 하는 意圖였다.

【參考文獻】

- 元·關漢卿撰 《關漢卿戲曲集》，臺北，宏業書局，民國 62
 李炳海 《民族融合與中國古代文學》 長春，東北師範大學出版社，1997
 周良霄 《元代史》 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3
 謝祥皓 《中國儒學》 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9
 史衛民 《元代社會生活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6
 李修生의 《元雜劇論集》 北京，百花出版社，1994

33) 李炳海, 《民族融合與中國古代文學》, 中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7, 22-28쪽 참조.

- 劉守華 《中國民間故事史》 武漢，湖北教育出版社，1998
顏天佑 《元雜劇所反映之元代社會》 臺北，華正書局，民國 73
鄧紹基 《元代文學史》 北京，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1
明·宋濂等撰 《元史》 臺北，洪氏出版社，民國 64

【中文提要】

關漢卿生活於蒙元之際。這時期的中國是一種特殊的社會形態，一方面，蒙古等北方遊牧民族帶着濃厚的原始遺風南下，另一方面，他們所進入的中國早已是成熟的文明社會。由此以來，野蠻和文明的溝通，整合，構成了蒙元之際社會的基本特徵。本文的主題是關漢卿戲劇的倡孝走勢。北方遊牧民族帶着原始遺風進入中土，原始風尚很重要的內容是講究孝道，這和儒家的禮教一拍即合，二者很容易達成默契。在這種風尚影響下，關漢卿戲劇的倡孝走勢極其明顯，成功地塑造了竇娥和韓瓊英兩位孝女形象，以孝為線索構成曲折起伏的情節。忠和孝在古代是聯關在一起的，關漢卿戲劇形成了忠孝結合的兩種模式，一是義父義子型，二是清官孝子型。關漢卿以恍惚的筆法向人們昭示忠孝一致的道理，其實是表達他本人的願望。

【主題語】

關漢卿，戲劇，孝忠一致，倡孝